

201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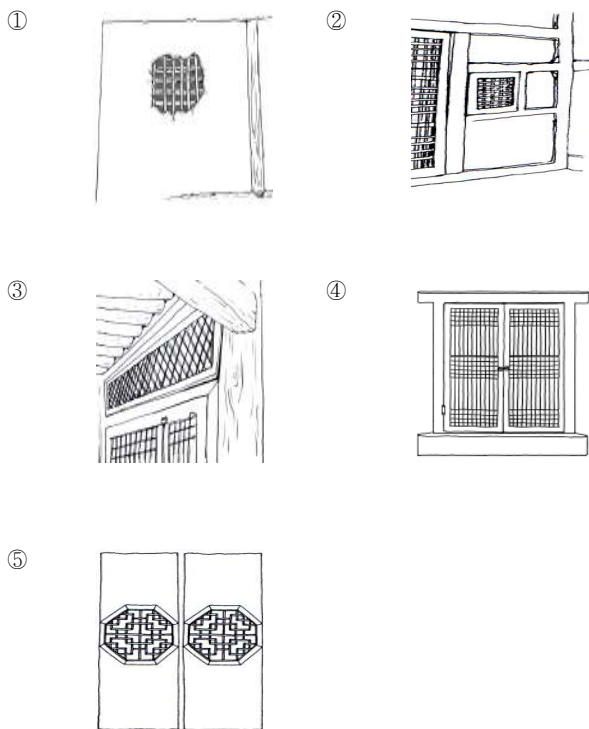
수험번호 1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교사가 제시한 자료가 아닌 것은? [1점]



2. (물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국장은 된장에 비해 싱겁겠군.
- ② 청국장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군.
- ③ 청국장은 된장에 비해 발효 기간이 매우 짧군.
- ④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많아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겠군.
- ⑤ 청국장을 만들 때 벗질을 꾀는 이유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겠군.

3. (물음) 방송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접시꽃의 효능
- ② 접시꽃 학명의 의미
- ③ 접시꽃의 번식 방법
- ④ 접시꽃의 생태적 특징
- ⑤ 접시꽃이라는 명칭의 유래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동아리 활동 계획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동아리 활동 계획
활동 취지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 ㉠
활동 목표	·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10% 줄이기 ... ㉡
활동 내용	· 표어와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 · 공익 광고 촬영 및 상영
활동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어와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 · 작품 완성 기한: 다음 주 · 활동 시간: 점심시간 ㉢ · 활동 장소: 식당 앞 ■ 공익 광고 촬영 및 상영 · 작품 완성 기한: 다음 달 ㉣ · 상영 시간: 아침 조회 시간 · 상영 장소: 교실
기대 효과	·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인식 · 환경 동아리에 대한 이미지 제고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물음) 선생님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 ②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유도한다.
- ③ 학생의 의견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④ 대비되는 사례를 들어 학생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 ⑤ 개인적인 체험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공감을 유발한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자연물로부터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상의 대상	추출한 의미	연상한 내용
 보름달	세상의 모든 사물을 고루 비춤	⇒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①
 꽃	향기가 퍼짐	⇒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 ②
 소나무	사계절 변함없이 푸름	⇒ 다른 사람을 한결같이 대해야 한다. …… ③
 낙엽	씩어 거름이 됨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④
 빗물	메마른 땅을 적심	⇒ 다른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7.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 보기 >
- 대구의 형식을 활용할 것.
 -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할 것.
 -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을 것.

- ① 차가운 시선은 싫어, 따뜻한 눈빛이 좋아
모두가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만듭시다.
- ②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 이루어집니다.
- ③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만들어 갑시다.
- ④ 차이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
이웃의 가슴에 아픈 못을 박는 것입니다.
- ⑤ 다름이 존중되는 밝은 사회
다름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8. <보기>는 학교 스포츠클럽 창단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I. 서론 : 학교 스포츠클럽 창단의 필요성 및 의의
- II. 본론
1. 실태
- 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효과 …… ㉠
 - 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 다. 긴전한 여가 활용 기회 부족
 - 라. 재정적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 …… ㉡
2. 장애 요인
- 가. 학교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 나.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
 - 다.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학교 시설 미비
 - 라. 스포츠클럽 담당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3. 해결 방안 …… ㉢
- 가. 학교 스포츠클럽 안내를 통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 나. 지역 사회와 연계한 체육 시설 활용 …… ㉣
 - 다. 담당 지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안
- III. 결론 및 제언
-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학교 공동체의 관심 촉구 … ㉤

- ① ㉠은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로 옮긴다.
- ② ㉡은 글의 논리적 전개를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③ ㉢에는 'II-2-나'와의 긴밀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효과 홍보'를 하위 항목에 추가한다.
- ④ ㉣은 'II-2-다'를 고려하여, '학교 간 스포츠클럽의 교류 확대'로 수정한다.
- ⑤ ㉤은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창단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관심 촉구'로 바꾼다.

9. '셧다운 제도를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신문기사
셧다운(Shut down)제도는 특정 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에는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 신문 -

(나) 인터뷰
“제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저희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에는 저녁도 먹지 않고 새벽까지 게임을 해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그나마 대화를 할 시간도 없어요.” - 학부모 ○○○씨 -

(다) 통계자료
1.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12.4%)은 성인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5.8%)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현황

질 문	답 변	응답자 수(%)
인터넷 게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가?	게임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53.4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	43.9
	게임을 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짜증이 심하게 난다.	2.7

- ○○ 센터 -

- ① (가)를 활용하여, 셧다운 제도의 개념과 도입 취지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가)와 (다)를 활용하여, 셧다운 제도가 성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셧다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⑤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접속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10. <보기>를 고쳐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쉽게 잠을 잘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유의 성분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 바뀐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도 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초콜릿과 같은 식품의 섭취를 ㉡ 삼가해야 한다. ㉢ 이러한 식품들에 들어 있는 카페인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흥분 작용을 억제해 주는 대추차가 적당하다.

그런데 ㉤ 배가 고른 허기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잠이 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더욱 피로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한 공복감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에는 오이나 샐러리 등의 채소를 조금 섭취해 공복감을 없애 주는 것이 좋다.

- ① ㉠은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바뀌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삼가야'로 바꾼다.
- ③ ㉢은 문맥을 고려하여 앞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④ ㉣은 전체 내용과 관련이 적어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허기진'을 삭제한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고유어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우리말의 고유어와 한자어는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일(一) 대 다(多)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

- ① 주다 ② 갚다 ③ 내다 ④ 베풀다 ⑤ 되돌리다

12.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를 통해 관형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내가 가던 바다 / 내가 가는 바다 / 내가 갈 바다
 ㄴ. 새로운 제품 / 예쁜 누나 / 달리는 동생
 ㄷ. 대학생인 오빠 / 사장인 아빠
 ㄹ. 온갖 새 물건들 / 저 두 남자

- ① ㄱ을 보니, 관형어의 어미에는 시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겠군.
- ② ㄴ을 보니, 품사가 달라도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두 관형어가 나열될 때에는 관형어가 관형어를 꾸미기도 하는군.
- ④ ㄴ과 ㄷ을 보니,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변형되어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⑤ ㄱ~ㄷ을 통해 관형어는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물원의 오후 조지훈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은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나) 점심, 후회스러운 정일근

한여름 폭염. 무더운 거리 나서기 싫어, 냉방이 잘 된 서늘한 사무실에서 시켜 먹는 **편안한 점심.** 오래 되지 않아 3층 계단을 힘겹게 올라올 단골 밥집 쪼찌 아주머니. 나는 안다, 머리에 인 밥과 국, 예닐곱 가지 반찬의 무게, 염천에 굶은 염주알 같은 땀 흘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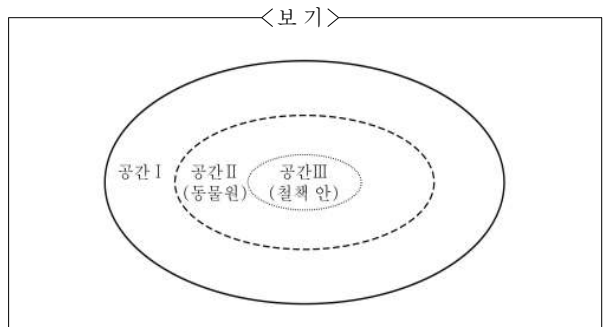
오르는 고통의 계단,.....나는 안다, 머리에 인 밥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녀의 삶.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늙은 시어머니의 치매, 아직도 공부가 끝나지 않은 어린 사남매, 단골이란 미명으로 믿고 들려준 그녀의 가족사.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한다) 서늘한 사무실에 짐승처럼 간혀, 흰 와이셔츠 넥타이에 목 묶인 채 먹는 점심. **먹을수록 후회스러운 식욕.**

(다) 보리타작 정약용

- [A]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개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겁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 [B]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 [C]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 [D]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오.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통한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②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탄식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간 I은 화자에게 소통이 제한된 억압적 상황이다.
- ② 공간II는 화자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 공간이다.
- ③ 공간 I에서 공간II로 이동한 화자는 자신이 망국민임을 느낀다.
- ④ 공간II에서 화자는 공간III의 짐승과 전도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지향한다.
- ⑤ 공간 I ~ 공간III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15.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여름 폭염'은 '나'와 '최씨 아주머니'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 ② '편안한 점심'에서는 '최씨 아주머니'의 처지를 고려하지 못한 화자의 이기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 ③ '나는 안다'를 반복하는 것은 '나'를 미더운 단골로 여기는 '최씨 아주머니'에게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④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한다)'에는 '최씨 아주머니'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먹을수록 후회스러운 식욕'에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16.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색채어를 대비하여 장면을 인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17. (다)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보리타작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는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노동하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는 [A], [B]에서 주목한 농민들의 모습에서 정신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D]에는 [A]~[C]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화자의 삶과 연계되어 진술되고 있다.
- ⑤ [A]~[D]에는 지난날에 없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는 화자의 의지가 제시되고 있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의 처지를, ㉡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은 내면적 상황을, ㉡은 외적인 상황을 부각한다.
- ③ ㉠은 후회의 정서를, ㉡은 자족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④ ㉠은 인위적인 조건과, ㉡은 자연적인 조건과 연계된다.
- ⑤ ㉠은 실제적인 현상을, ㉡은 환상적인 현상을 유발한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단지성(集團知性)이란,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다수의 일반인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게 되면, 전문가의 능력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로 공유, 참여, 협업(協業)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지성은 인지적 능력을 비롯한 두뇌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1세기를 전후하여 집단지성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에 의해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동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우리는 공유한다. 고로 창조한다.'는 명제로 대변되는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 리눅스를 들 수 있다. 1991년 리누스 토발즈는 자신이 개발한 리눅스 초판 프로그램과 함께 소스코드*까지 인터넷에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마니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마음껏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리눅스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 꾸러졌다. 리눅스 커뮤니티는 헌신적으로 프로그램의 중핵을 관리하는 수십 명의 핵심 그룹과 이들에게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십만 명의 기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매우 정교하고도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해 냈고, 2006년에는 전 세계 컴퓨터 서버의 80%가 리눅스를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발표된 리눅스 배포판을 소프트웨어 전문가 한 사람이 개발했다면 6만 년의 시간과 8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규모이다.

집단지성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토발즈가 제공한 리눅스 초판과 같이 기여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훌륭한 핵심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복잡한 것이어서 기여자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개선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핵심의 주변에 모여든 자발적 기여자의 규모가 되도록 크게 성장해야 하고, 기여자들은 다양한 기술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될 때 효율적이다. 셋째, 조각조각 분열된 공동체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만 한다. 넷째, 집단지성 공동체는 위계적 통제력을 갖춘 세력이 없이 자율적, 수평적, 개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고한 자율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작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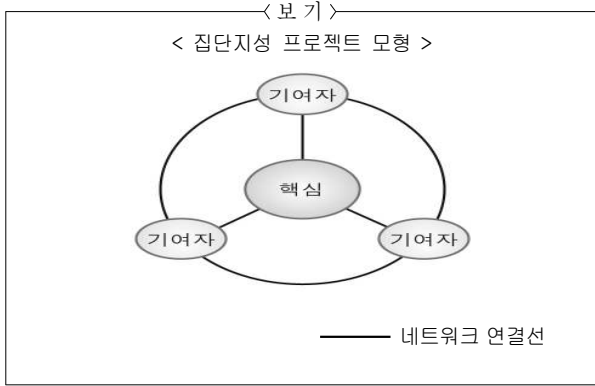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혁신과 창조를 이루게 된다. 20세기에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아이디어 위주의 21세기에는 무엇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오픈소스(Open Source) : 소스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
 * 소스코드(Source Code) : 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

19.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이 아닌 것은?

- ① 집단지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리눅스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③ 집단지성이 최근에 주목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리눅스는 어떻게 집단지성의 성공 사례가 되었는가?
- ⑤ 집단지성이 제약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심이 복잡하지 않고 완벽하다면 기여자들은 도전 의식을 갖기가 어렵겠군.
- ② 핵심 주변에 더 많은 기여자들이 모여든다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커지겠군.
- ③ 핵심의 주변에 모인 기여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지닌 균질한 집단일 때 효율적이겠군.
- ④ 핵심과 기여자, 기여자와 기여자 간의 자율 규제가 없다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렵겠군.
- ⑤ 핵심과 기여자, 기여자와 기여자를 잇는 네트워크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군.

21. ㉠이 구현된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사는 자사 스마트폰의 기술을 공개하여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만들어 배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되었다.

㉡.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의 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해 교류하고 활동하는 온라인 가상현실 사이트이다. 세계적인 IT기업 ☆☆사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명의 직원들이 세컨드 라이프의 아바타를 통해 정례회의를 한다.

㉢. ○○사는 개인 소유의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다수의 주주 소유인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규모를 키우고 경영 수지도 개선시켰다.

㉣. '위키피디아'는 정보 공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기고를 바탕으로, 사전의 항목을 구성하여 만들어진 무료 인터넷 백과사전이다. 일반인의 참여만으로 항목수가 2백만 개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사전이 만들어졌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2.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형성(形成)되었다.
- ② 양성(養成)되었다.
- ③ 달성(達成)되었다.
- ④ 작성(作成)되었다.
- ⑤ 완성(完成)되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의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준은 '도덕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자아가 도덕적 자아인데, 이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데이먼(Damon)이다. 그는 도덕적 자아는 도덕성과 행동의 주체인 자아가 통합되어야 발달된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이행을 분리된 도덕성과 자아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

㉠ 보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각각 두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시기에 두드러지는 네 가지 자아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신체적 자아', '활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심리적 자아'가 그것이다.

아동기 전기에 아동들에게 자신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나는 키가 110cm야.'와 같은 진술을 한다. 이는 이 시기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주로 자신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아가 '신체적 자아'이다. 아동기 후기가 되면 아동들은 '난 우리 학교 축구 선수야.'와 같은 자기 진술을 한다. 이는 이 시기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주로 자신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아는 '활동적 자아'이다. 종합해 보면 아동기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주로 자신의 신체, 활동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타인 또는 사회, 정의, 도덕 등 더 넓은 범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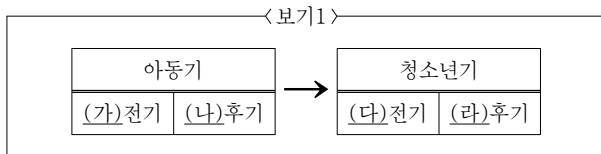
청소년기 전기가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난 성격이 개방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줘.' 하는 식의 자기 진술을 한다. 이는 자아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을 일정 부분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기 전기에는 사회적 자아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청소년기 후기는 청소년들이 도덕적, 철학적, 정치적 이론들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평가하며 수용하는 시기이다. 이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 개인 철학에 기초하여 자신을 바라본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진보주의자야.'와 같은 자기 진술은 이 시기에 심리적 자아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적 자아의 단계를 지나 도덕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도덕적 자아가 발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도덕성과 자아가 통합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데이먼은 도덕성과 자아가 통합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도덕적 자아가 완성되기까지 지속적인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청소년기에는 사회에 대한 진보적 인식이 필요하다.
- ②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발달되는 자아는 다르다.
- ③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인식은 두드러지게 발달된다.
- ④ 아동기의 자기 이해는 주로 자신의 신체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 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면서 도덕성과 자아는 통합을 향해 간다.

24. <보기1>은 도덕성 발달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2>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2>
<자기 진술의 사례>

ㄱ. 나는 우리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야.
 ㄴ. 나는 발이 매우 커서 다른 아이들보다 큰 신발을 신어.
 ㄷ. 나는 시대가 바뀌어도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ㄹ.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많이 생각해.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ㄹ | ㄴ |
| ③ | ㄴ | ㄱ | ㄹ | ㄷ |
| ④ | ㄴ | ㄱ | ㄷ | ㄹ |
| ⑤ | ㄴ | ㄷ | ㄹ | ㄱ |

25. [A]를 바탕으로 <보기>의 ‘갑’의 행동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버스에 빈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데, 피곤하고 다리도 아팠다. 몇 정거장을 지나 노약자석이 한 자리 비어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타셨다. 피곤하고 다리가 아팠던 ‘갑’은 할머니가 자신의 옆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이윽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하는 수 없이 ‘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 드렸다.

- ① 잠든 척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통해, ‘갑’에게서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②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한 모습을 통해, ‘갑’에게서 심리적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주변 사람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양보한 모습을 통해, ‘갑’과 주변 사람들의 상호 작용이 단절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④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 드리지 않고 잠든 척한 것을 통해, ‘갑’에게서 청소년기에 주로 발달하는 자아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 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끼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갑’에게서 사회적 자아가 발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 ② 지금은 응급 환자만 보고 있기에 힘든 상황이다.
- ③ 어제 그의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 ④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야 한다.
- 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을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깨 기력이 부쳐서 그렇지 노동도 아주 못 허먹을 노릇은 아니구나.” 어느새 그렇게 자신이 붙었는지 아버지는 흰소리를 늘어놓으며 한 삽 듬뿍 퍼서 올렸다. 구덩이 깊이가 벌써 아버지의 허리를 넘어 있었다. 방금 밖으로 내던져진 토탄(土炭)*을 무심코 내려다보다가 나는 약간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모르는 사이에 빛같이 변해 있었던 때문이다. 검누른 빛을 띤 양질의 토탄층이던 것이 어느 겨를에 갑자기 끈적끈적 물기 먹은 저질의 진흙 같은 모양을 덮어쓰고 나오는 중이었다.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아버지는 그와 같은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내가 마악 입을 열어 그 점을 지적하려는 참인데 매마침 눈 임자가 뒷짐을 진 채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이보쇼, 당신 거그서 시방 뭐허는 게요?”
 구덩이 속을 굽어다보며 눈 임자가 소리를 뿅 내질렀다.
 “뭐하는 게요라니, 몰라서 묻쇼?”
 삽자루를 세우면서 아버지는 계체에 잠시 쉴 참을 즐길 작정인 듯이 걸어오는 농담을 맞받아 튀길 만반의 자세를 갖추었다.
 “내 눈엔 당척 알 수가 없구만. 남에 눈 가운데다 조상님 산소라도 피실 작정이유? 비싼 밥 묵고 씨작디없이 웬 구덩이는 그리 깊이 파는 게요?”
 “예끼 여보슈!”
 아버지는 약간 비위가 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① 농담도 유분수지, 산소를 피시다니 말이나 되우? 아무리 땅 쥬 이라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산 토탄 내가 파는디 사람이 그러면은 덜 좋은 법이오.”
 “당신 말이 옳긴 옳으요. 그래, 토탄이나 파랬지 남에 귀헌 논바닥

흠까장 말짱 들어 가랬소?”
“흠이라.....”

그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구덩이 바닥으로 달짝 쏟아졌다. 한차례 심호흡인지 한숨인지 끝에 아버지는 허리를 새우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 손아귀에 진흙 한줌을 집어올려 요모조모로 찬찬히도 살피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버지는 양손을 짹짹 비벼 보다가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다가 필경에는 헛바닥으로 훑아 맛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손에 권 걸 무섭게 태질을 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했다. 정녕코 그것은 토탄이 아니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진흙이었다.

“팔 만침 땀이면 고만 나오시오. 내년 요맘때는 봄보리가 시퍼렇게 모가지 내밀고 싶을 땅이오.”

논 임자는 다시 뒷짐을 지고서 어슬렁거리며 멀어져 갔다. 아버지는 솟게 흠만죽으로 질척거리는 구덩이 바닥에 늘편하게 드러눕 버렸다. 별정계 취기가 기승을 올리는 얼굴이었다. 도무지 말이 없는 채 아버지는 멀거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아버지를 두고 나는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파는 분량의 겨우 삼분의 일이나 미칠까말까 하는 수확이었다. 아버지의 머리가, 아버지의 장대*가 바로 아버지 자신을 배반하고 능멸한 결과였다.

“너도 그렇다고 믿냐?”

한참 만에 아버지가 하늘을 상대로 밀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 애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냐?” 아버지는 다름 아닌 나를 상대로 묻고 있었다. 엉겁결에 나는 전에 자주 들은 풍월을 고대로 읊겨버렸다.

㉡ “안 그래요! 시국*을 잘못 만나서 운수가 불길해서 그래요!”

“허허, 고너르 자식!”

웃었다. 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내가 아버지를 웃겼다. 장남인 내가 마침내 내 힘으로 아버지를 웃게 만든 것이다.

“너 울로 좀 들어오나라. 부자기간에 어디 한번 짱짜란히 둔둠서 하늘이나 구경허자. 요렇게 네모틀 너머로 보니까 하늘이 여간만 곱들 앓구나.”

나는 아버지의 분부를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은 조금도 틀린 데가 없었다. 정말로 하늘은 고왔다. 드높이 매달린 파란 하늘을 소담한 구름덩이 하나가 한가하게 질러가고 있었다. 아버지 말마따나 네모틀 안에 가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곱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실은 말이다. ㉢ 시국* 탓도 운수* 탓도 아니란다. 느이 애비가 아직도 사람이 덜된 탓이란다.”

일차로 술냄새부터 확 다가왔다. 그리고 이차로 아버지의 음성이 컷바퀴에 소곤소곤 감겨왔다. 등덜미를 축축히 적시는 진흙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나는 아버지의 귀엣말에 무조건 머리부터 끄덕여 보았다.

“자아, 인자 그만 이놈의 조상님 산소 자리 같은 구덩이서 슬슬 나가보자. 별수 있냐. 손해 본 토탄은 이 애비가 무신수로든 별충허야지. 까짓것 또 땀감이 떨어지는 날이면 내 몸뚱이를 태워서라도 느이들을 따습게 땀갈 작정이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가고 아버지의 장남인 내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아버지의 궁둥이가 내 코앞에서 커다랗게 얼천거렸다. 구덩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배비작거리는 그 궁둥이의 움직임과 보고 있노라니 ㉣ 갑자기 목구멍이 갑박 잠겨오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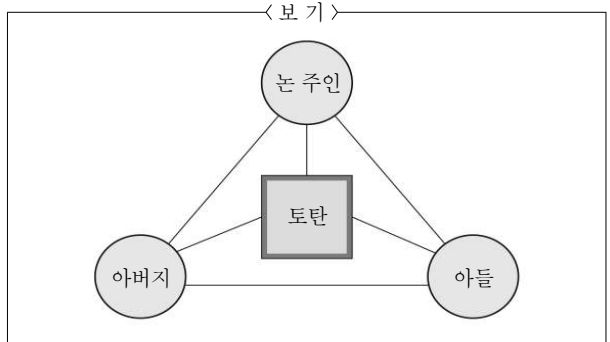
* 토탄 : 땅에 묻힌 기간이 짧아 탄화 작용이 충분히 되지 못한 석탄의 일종
* 장대 : 토탄층의 두께를 가늠하는 용도로 '아버지'가 긴 막대기를 뽀족하게 깎아 만든 것
* 시국 : 당면한 국내 및 국제적 정세

- 윤홍길, <땀감> -

2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하는 두 입장 중 특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부각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사건의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28. 위 글의 인물과 '토탄'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와 '아들'은 땀감을 마련하기 위해 '토탄'을 캐고 있다.
- ② '아버지'는 '논 주인'으로 인해 '토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실망한다.
- ③ '아버지'는 '토탄'을 통해 '아들'에게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 ④ '아들'은 '토탄'의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였으나 '논 주인'의 등장으로 말하지 못한다.
- ⑤ '논 주인'은 '아버지'가 자신의 논에서 '토탄'을 캐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제지하고 있다.

29. 위 글에서 구덩이가 갖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대 현실을 인식하는 공간
- ② 아버지의 계획이 실현되는 공간
- ③ 아버지의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
- ④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
- ⑤ 아버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버지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논 주인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 ② ㉡ : 아버지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 ③ ㉢ : 아버지의 실수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 ④ ㉣ : 자신이 처한 시대 현실을 원망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다.
- ⑤ ㉤ : 초라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있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커스에서 곡예사는 긴 장대를 잡고 외줄을 탄다. 우리도 평균대와 같은 좁은 지역을 지날 때, 자세를 낮추거나 양팔을 벌린다. 왜 그럴까?

사람의 무게 중심은 배꼽 위 20센티미터 위의 척추 부근에 있다. 사람의 무게 중심이 지지점과 가까울수록 넘어지지 않는다. 지지점은 물체가 지면에 닿은 부분으로 한 발로 서 있을 때에는 그 발바닥이 지지점이 되고 두 발을 벌리고 서있을 경우에는 두 발바닥 사이가 안정 영역이 된다.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 영역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어야 한다. 만약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게 중심이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서 벗어난다면, 중력에 의한 회전력을 받게 되어 지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넘어진다. 이렇게 기우뚱거리며 넘어지는 과정도 회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사람의 무게 중심은 지면을 지지점으로 하기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쉽다. 그러나 외줄 위에 서면 발바닥과 줄이 닿은 부분으로 안정 영역이 줄어들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부의 힘에도 쉽게 좌우로 흔들리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때 곡예사처럼 장대를 이용하면 균형 잡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장대를 든 경우, 곡예사의 무게 중심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 관성 모멘트란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이 회전축에 대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관성 모멘트가 크면 물체가 균형을 잡으려는 회전 운동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로 인해 균형을 잡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장대를 든 곡예사는 관성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좌우로 천천히 회전 운동을 한다. 이때 곡예사는 몸과 발, 그리고 장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무게 중심을 안정 영역에 오도록 한다.

또한 긴 장대 끝에 무거운 추를 매달 경우, 장대가 점점 휘어져 외줄 아래로 처지게 된다. ㉠의 경우 곡예사는 특별한 기교 없이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곡예사의 무게 중심은 장대가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점점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아예 외줄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만약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곡예사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왼쪽 추가 오른쪽 추보다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때 왼쪽 추는 본래 있던 자리로 가려는 힘이 오른쪽 추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움직인다.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곡예사의 무게 중심은 결국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 오게 되고 곡예사는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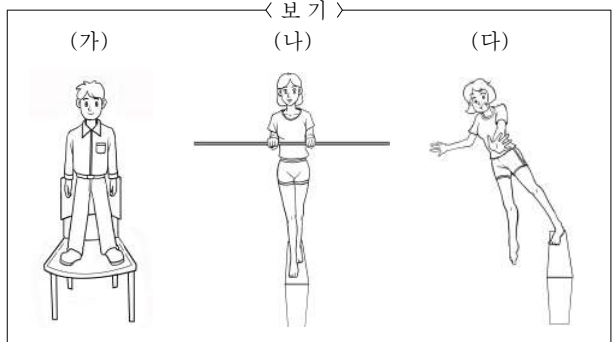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람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무게 중심, 안정 영역, 지지점, 중력, 물체의 질량, 회전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연직 방향 : 중력과 일직선상에 있는 방향

31.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비하고 있다.
- ② 현상에 대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예를 통해 대상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고 있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학생은 (나)의 학생보다 안정 영역이 넓다.
- ② (가)의 학생과 (나)의 학생은 무게 중심이 지지점 위에 있다.
- ③ (가)의 학생과 달리 (다)의 학생에게는 회전력이 작용한다.
- ④ (나)의 학생은 (다)의 학생보다 관성 모멘트가 작다.
- ⑤ (가)와 (나)의 학생과 달리 (다)의 학생의 무게 중심은 지지점과 연직 방향에 놓여 있지 않다.

33.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곡예사의 관성 모멘트가 점점 커지므로
- ②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 ③ 장대와 추의 질량에 비례하여 외줄의 위치가 내려가므로
- ④ 곡예사에게 작용하는 중력보다 추의 회전력이 더 커지므로
- ⑤ 장대와 추의 질량으로 곡예사의 무게 중심이 지지점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 태어난 계월은 어릴 적, 남장을 하고 자란다. 이후 계월은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져 죽을 고비를 맞으나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여공은 계월에게 평국이라 이름지어 주고, 계월은 여공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장원급제한다. 그 후 서달이 반란을 일으키자 평국과 보국은 전쟁에 출정한다.

날이 밝으며 군사가 아뢰되,
“서달 등이 도망하여 벽파도로 갔다 하오니 급히 도적을 잡게 하옵소서.”

원수(元帥) 이 말을 듣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강변에 이르러 어선을 타고 건너갈 때, 배마다 기치 창검을 세우고 원수는 주중에 단을 높이 문고 갑수를 갖추고 삼척장검을 높이 들고 중군에 호령하여 배를 바빠 저어 벽파도로 행할 때, 씩씩한 위풍과 늠름한 거동이 당세 영웅일러라.

이 때 홍시랑은 부인으로 더불어 계월을 생각하고 매일 설위하더니 뜻밖에 들리는 소리가 나거늘 놀라 급히 초막 밖에 나서보니 무수한 도적이 들네거늘, 시랑이 부인을 데리고 천방지방(天方地方)* 도망하여 산곡으로 들어가 바위틈에 몸을 감추고 통곡하더니 그 이튿날 평명에 또 강가를 바라보니 배에 군사를 싣고 기치 창검이 서리 같고 함정이 진동하여 벽파도로 행하거늘, 시랑이 더욱 놀라 몸을 감추고 있더라.

원수가 벽파도에 다다라 배를 강변에 매고 진을 치며 호령하기를,
“서달 등을 바빠 잡으라.”

하니 제장이 일시에 고향하고 벽파도를 둘러싸니 서달이 하릴없어 자결하고자 하더니 원수 군사에게 잡혔는지라 원수 장대에 높이 앉아 서달 등을 꿰리고 호령하기를,

“이 도적을 차례로 군문 밖에 내어 베라.”

하니 무사 일시에 달려들어 철통을 먼저 잡아내어 베고 그 남은 제장은 차례로 베니라.

이 때, 군졸이 원수께 여쭙오되,
“어떤 사람이 여인 수인을 데리고 산중에 숨었기로 잡아 대령하였나이다.”

하거늘, 원수 잠깐 머무르고 그 사람을 잡아들이라 하니 무사 결박하여 대하에 꿰리고 죄목을 물으세, 이 사람이 냇을 잃었더라. 원수 이르기를,

“너희를 보니 대국 복색이라 적병이 너희를 응하여 동심합력(同心合力)하였단다. 바로 아뢰라.”

이에 시랑이 황급하여 정신을 진정하여 아뢰기를,
“소인은 전일 대국에서 시랑 벼슬하옵다가 소인 참조에 고향에 돌아가 농업을 일삼다가 장사랑 난에 잡혀 이리이리되와 이곳으로 정배 온 죄인이오니 죽어 마땅하여이다.”

원수 이 말을 듣고는,

“네 천자의 성을 배반하고 역적 장사랑에게 부탁하였다가 성상이 어지사 너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정배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백골난망이거늘 이제 또 적당(賊黨)에 내응(內應)* 이 되었다가 이렇듯 잡혔으니 네 어찌 변명하리오.”

잡아내어 베라 하니 양부인이 앙천통곡하기를,
“예고 이것이 여인 일인가, 계월아. 너와 한가지 강물에 빠져 그

[B] 때나 죽었다면 이런 욕을 면할 것을 하늘이 미워 여기서 모진 목숨 살았다가 이 거동을 보는도다.”

하며 기절하거늘, 원수 이 말을 듣고 문득 선생의 이르던 말을 생

각하고 대경하여 좌우를 다 치우고 앞에 가까이 앉히고 가만히 묻기를,

“아까 들으니 계월과 한가지 죽지 못함을 한하니 계월은 다투며 그대 성은 다투라 하느냐?”

하니 부인이,

“소녀는 대국 형주 땅 구계촌에 사옵고 양 처사의 여식이오며 가군은 홍시랑이옵고 저 계집은 시비 양운이요, 계월은 소녀의 딸이로소이다.”

하며 전후 수말을 날날이 다 아뢰니 원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세상사가 꿈같은지라. 급히 뛰어내려 부인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C]—“어머님, 제가 물에 들던 계월이로소이다.”

하며 기절하니 부인과 시랑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붙들고 통곡 기절하니 천여 명 제장과 팔십만 대병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며 공동(共同)하여 흑 눈물을 흘리며 천고에 없는 일이라 하며 영 내리기를 기다리더라.

보국은 이왕 평국이 부모 잃은 줄을 아는지라, 원수 정신을 진정하여 부모를 장대에 모시고 여쭙오되,

“그때 물에 떠가다가 무릉포 여공을 만나 건져 집으로 돌아가 친자식 같이 길러 그 아들 보국과 한가지로 어진 선생을 밑에 동문수학(同門修學)하여 선생의 덕으로 황성에 올라가 둘이 다 동방급제(同榜及第)*하여 한림학사로 있삽다가 서달이 반하여 작란하매 소자는 대원수 되고 보국은 중군이 되어 이번 싸움에 적진을 할새, @ 서달이 도망하여 이곳으로 오윽기에 잡으러 왔삽다가 천행으로 부모를 만났나이다.”

하며 전후 수말을 날날이 다 고하니, 시랑과 부인 듣고 고생하던 말을 일일이 다 설화하며 슬피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함루(含淚)하는 듯하더라.

* 천방지방(天方地方) : 너무 급해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날뛰는 모양
* 내응(內應) : 은밀히 내부에서 적과 통함
* 동방급제(同榜及第) : 같은 때에 대과에 급제함.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34.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시랑은 서달을 피해 벽파도로 건너왔다.
 - ② 계월은 도적을 소탕하기 위해 벽파도로 갔다.
 - ③ 홍시랑은 계월의 군사에게 잡혀 위기를 맞았다.
 - ④ 보국은 계월이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졌음을 알고 있었다.
 - ⑤ 홍시랑은 원수(元帥)가 된 계월이 자신의 딸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35. 위 글의 사건을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에 대응시켰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웅소설>	<홍계월전>
어려서의 고난과 시련	- 물에 빠져 부모와 헤어짐 ①
↓	↓
조력자의 등장으로 역경 극복	- 여공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함... ②
↓	↓
탁월한 능력 발휘	-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원수가 됨 ③
↓	↓
또 다른 고난과 시련	- 적과 은밀히 내통한 홍시랑 부부의 목을 베려 함 ④
↓	↓
투쟁에서의 승리	- 반란을 제압하고 큰 공을 세움... ⑤

36.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A]에 나타난 인물 관계는 [C]에서 전환된다.
ㄴ. [A]의 내용을 통해 [C]의 정황을 알 수 있다.
ㄷ. [A]에서 드러난 갈등 양상은 [C]에서 심화된다.
ㄹ. [B]는 [C]를 이끌어 낸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㉔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천우신조(天佑神助)
 ② 사면초가(四面楚歌)
 ③ 동상이몽(同床異夢)
 ④ 각골난망(刻骨難忘)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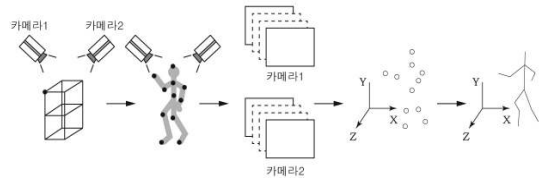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션캡처(motion capture)는 공간상에서 제작된 영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만든 영상은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에 따라 기계식, 자기식, 광학식으로 구분된다.

㉑ 기계식은 기계 장치를 몸에 부착하여 각 관절 부위의 움직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설치와 운영이 간편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에 비해 장비의 가격도 저렴하다. 그러나 무거운 기계 장치를 부착해야 하므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다.

㉒ 자기식은 송신기로 전자기장을 형성시킨 후, 각 관절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몸의 움직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위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감지기에 연결된 여러 가닥의 케이블선이 몸에 붙어 있어 움직임에 제약이 있고, 센서가 반응할 수 있는 자기장의 공간도 제한적이다. 또한 주위의 금속 물체에 의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㉓ 광학식은 신체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이미지를 다시 3차원 위치데이터로 계산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 ㉔ 광학식 모션캡처 방식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1]에서는 촬영 공간과 대상의 동작을 고려하여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때 표식*이 부착된 구조물을 먼저 중앙에 설치하여 초기 측정을 하는데, 이는 촬영 후에 얻게 될 위치 데이터, 즉 좌표 값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이다. [단계 2]에서는 대상을 촬영하여 표식에 반사된 좌표 값을 측정하기 위해 표식을 몸에 부착한다. 이 표식은 크기가 작아 위치나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단계 3]에서는 카메라로부터 좌표 값을 뽑아낸다. [단계 4]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2차원적인 좌표 값을 3차원으로 나타낸 후, 좌표 값의 사라진 부분이나 오차가 생긴 부분을 보완 및 수정한다. [단계 5]에서는 좌표 값을 연결하여 뼈대 구조를 가지는 모션 데이터로 변환한다.

촬영 중 동작에 의해 표식이 가려지면 카메라들이 추적할 수 없게 되어 좌표 값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3차원의 좌표 값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완 및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적게는 6대, 많게는 24대 정도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표식이 가려지는 부분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광학식 장비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넓은 공간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정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가 높다.

* 표식 : 신체 등에 부착하여 신호를 감지하는 표시물

38.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모션캡처의 개념
- ② 모션캡처 기술의 전망
- ③ 모션캡처의 변천 과정
- ④ 모션캡처의 활용 분야
- ⑤ 모션캡처의 자료 추출 방식

3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작 중 표식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단계 1]에서 카메라의 수를 늘려야 한다.
- ② [단계 2]에서 표식을 부착할 수 있는 곳은 몸의 어느 부위나 가능하다.
- ③ [단계 3]의 카메라에서 얻어낸 좌표 값을 [단계 4]에서 입체적 좌표 값으로 변환한다.
- ④ [단계 4]에서 일부 좌표 값을 구할 수 없었다면, 부착된 표식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다.
- ⑤ [단계 5]에서 좌표 값을 모두 연결하면 뼈대 구조를 지니는 새로운 입체적 형상을 얻을 수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보다 장비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 ② ㉠은 ㉠과 달리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 ③ ㉠은 ㉢과 달리 무선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 ④ ㉠은 ㉢에 비해 움직임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 ⑤ ㉠과 ㉠은 ㉢에 비해 동작 표현에 제한이 있다.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부장 소장님,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보상금 문제, 둘째는 감정적인 문제죠. 사고가 일어나면 언제나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 때문에 말쟁이구요, 또 광부들의 격앙된 감정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14번 갱의 작업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늦어지느냐가 달린 거죠.

소장 늦어져서는 안 돼, 절대로!

지부장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고의적인 사고라고 해야 합니다.

소장 고의적인 사고라니?

지부장 이틀테면..... 갱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어겨서 생긴 사고라든가..... 가령 어떤 광부가 금지된 성냥을 켜다..... 더구나 그 성냥으로 다이ना마이트에 불을 붙였다면..... 물론 자기 목숨을 일부러 끊어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소장 ㉠ 그게 무슨 소리아? 어떤 병신 같은 자식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지부장 ㉡ 하지만 사람이란 죽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산다는 게 무의미하다든가, 불치의 병에 걸려 괴롭기만 하다든가, 가난에 쪼들려서 살 맛이 없다든가..... 그런 사람을 이번 사망자 중에서 찾아내는 거죠.

소장 그렇지만 지부장.....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사고를 낸 거라구 말할 수 있나?

지부장 물론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깐 산 사람을 말하도록 해야지요. 돈을 좀 준다든가, 힘든 일을 쉬운 일로 바꿔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치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소장과 노조 지부장은 생존자인 만석을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만석은 갈등한다. 사고로 인해 불안해진 광부들이 사고 원인을 밝혀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자 소장은 광부들을 대표하는 광부 박씨를 만난다. 소장은 광부 박씨를 새로운 노조 지부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

지부장 (광부들에게) 만석이가 믿지 못할 말을 하거든 절대로 작업하지 마!

광부 박씨 ㉢ 작업은 오늘부터 해야 돼! (만석에게) 사실을 말하라구, 만석이!

지부장 만석이, 사실을 말해 버려!

소장 쫓쫓, 빌어먹을! 말하라니까!

광부들 (만석에게 몰려 가며) 말해, 만석이!

지부장 사실을 말해!

광부 박씨 사실을 말하라구!

소장 말해, 사실을!

광부들 만석이, 사실을 말하라니까!

만석 ㉣ 여러분, 14번 갱의 사고 원인은..... 그런데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 쫓쫓, 빌어먹겠군,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 아니냐!

광부들 사실대로 말해! 만석이, 사실을 말하라니까!

만석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부 박씨 뭐야? 괜히 오해받게 만들지 말구 사실을 말해!

지부장 말해 버려, 어서!

소 장 말해!

광부들 ㉠ 무엇 때문에 말 못 한다는 거야? 만석이, 사실을 말해!

지부장 말하라구!

광부 박씨 사실대로 말해!

소 장 말하라니까!

만 석 사실은..... 사고 원인은..... 죽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갯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은 겁니다.

지부장 그건 사실이 아냐! 만석이, 왜 자네가 일부러 뒤집어쓰냐?

광부 박씨 (광부들에게) 오 그랬었군! 만석이 녀석이 응큼하게 여태껏 제 잘못을 숨겼어!

[A]

만석의 처 아네요! 제 남편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밖에 아무 잘못도 없어요!

광부들 (만석에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소 장 쫓겨, 빌어먹겠군! (광부들에게) 들었잖아, 모두들! 제 입으로 자기 때문에 생긴 사고잖아.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 이강백, <जू라기의 사람들> -

41. 위 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석이 말한 '사실'을 광부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 ② 만석이 말한 '사실'은 지부장이 원했던 '사실'이 아니다.
- ③ 광부 박씨와 소장이 만석에게 바라는 '사실'의 내용은 같다.
- ④ 소장은 만석이 말한 '사실'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다.
- ⑤ 지부장은 만석이 말한 '사실'을 이용하여 지위 상승을 꾀한다.

42. <보기>를 참고로 [A]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탄광촌의 매몰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현실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부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유도한다.

- ① 다수의 횡포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비판하고자 한다.
- ②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비판하고자 한다.
- ③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인간의 소시민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 ④ 고압적인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자 한다.
- ⑤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인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43.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호기심이 생긴다는 듯 지부장에게 다가서며 ㉠을 말하세요.
- ② 지부장은 침착하면서도 설득적인 어조로 ㉡을 말하세요.
- ③ 광부 박씨는 만석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을 말하세요.
- ④ 만석은 관객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사의 속도에 유의하며 ㉣을 말하세요.
- ⑤ 광부들은 만석의 태도가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을 말하세요.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들어서기 전에 이미 영화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사실주의와 형식주의이다. 1890년대 중반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을 매혹시켰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 그들의 실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옮겨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조르주 멜리에스는 순수한 상상의 사건인 ㉠ 기발한 이야기와 트릭 촬영을 혼합시켜 '달세계 여행'이라는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다. 이들은 각각 사실주의와 형식주의 영화의 전통적 창시자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사실주의 영화는 현실 세계에서 소재를 선택하되, ㉡ 왜곡을 최소화하여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다. 주된 관심은 형식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이다. 사실주의 영화에서 관객은 영화의 스타일을 눈치챌 수 없다. 이 계열의 감독들은 영상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을 편집하고 조작하기보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며, 극단적인 사실주의 영화는 실제 사건과 사람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를 지향하기도 한다. '영상이 지나치게 아름다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은 ㉢ 현실 세계 그대로의 사실적 재현을 가장 우위에 놓는 사실주의 영화의 ㉣ 압목적 전제로 ㉤ 통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주의 영화에 예술적인 기교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주의 영화일수록 기교를 숨기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형식주의 영화는 스타일 면에서 화려하다. 형식주의 영화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진실의 표현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형식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의 표면을 왜곡시킴으로써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때문에 현실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사건의 이미지를 조작한다. 이런 스타일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아방가르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화 중에는 색, 선, 형태로만 표현된, 완전히 추상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실제의 영화는 완전히 사실주의 영화도 형식주의 영화도 드물다.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환상적인 재료를 사실주의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현재의 현실 세계에 근거한 재료를 형식주의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물리적인 현실 세계는 사실주의 영화이든 형식주의 영화이든 모든 영화의 소재가 된다. 이 두 영화 사조의 차이는 오히려 영화의 소재인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 조형하고 조작하는가', '스타일상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등에 달려 있다.

44. 위 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낯선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며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변화를 시대별로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권위자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핵심적 질문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4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주의 영화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한다.
- ② 형식주의 영화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한다.
- ③ 조르주 멜리에스는 형식주의 영화를 제작했다.
- ④ 사실주의 영화에서 편집은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동원된다.
- ⑤ 형식주의 영화는 소재에 대한 주관적 표현에 관심을 갖는다.

46. <보기>의 관점에서 ㉠에 대해 보인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진이란 현실의 완벽하고 전체적인 반영이 결코 아니며, 사진의 영상은 촬영된 대상의 전체 물질적인 속성들 가운데 단지 하나 혹은 둘 정도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재현한 것일 뿐이다.”
 - 블라디미르 nil센(Vladimir Nilson) -

- ① 현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표현한다고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
- ② 만약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한다면 과연 영화는 현실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일까?
- ③ 실제 사건과 사람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현실 세계의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 ④ 영화의 본질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세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⑤ 영화 예술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면, 영화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4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수준이나 실력이 훨씬 뛰어남
- ② ㉡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③ ㉢ : 자기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함
- ④ ㉣ : 어느 곳이나 두루 쓰임
- ⑤ ㉤ : 여러 재료를 이용해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에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띄어쓰기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쾌해 보여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띄어쓰기 문제는 이렇게 명쾌하지 않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 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등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다. 단독으로 쓰이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은 띄어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다.”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길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 V 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 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48. 위 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보조 용언의 종류와 기능
- ② 띄어쓰기 규정의 문제점
- ③ 띄어쓰기 규정의 보완 기준
- ④ 보조 용언 띄어쓰기의 특성
- ⑤ 보조 용언 구성과 합성어의 공통점

49.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정문 바로 앞에 개업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어 보았다.

- ① ‘먹어 보았다’의 ‘보았다’는 보조용언이므로 붙여 쓸 수도 있겠어.
- ② ‘정문’, ‘바로’와 같은 경우 자립성이 띄어쓰기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돌아오는’은 ‘돌다’와 ‘오다’의 의미 관계가 긴밀하여 중간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겠군.
- ④ ‘학교에서’와 ‘학교’로 보아, 띄어쓰기의 기준이 ‘단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겠어.
- ⑤ ‘개업한’의 ‘-한’은 《한글 맞춤법》 제41 항이 적용되어 붙여쓴 것이겠군.

50.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새해 ② 밤바다 ③ 발바닥 ④ 부슬비 ⑤ 벼락부자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